

高麗時代 사람들의 삶과 傳統衣裳에 대한 考察

최 규 성[†]

상명대학교 사학과

A Study of People's Lives and Traditional Costumes in Goryeo Dynasty

Kyu-Seong Choi[†]

Dept. of History, Sangmyung University
(2004. 9. 10. 접수 : 2004. 11. 13. 채택)

Abstract

We can study and judge the costumes of the *Three Kingdom* period through an ancient tomb murals and various burial mound(clay) figures, however, it is quite difficult to search for costumes of the *Goryeo* period (960~1392), because dresses from this era were rarely found, related antiquities are limited and hard to survive. This is the reason why people say that the *Goryeo* Dynasty is the period of undiscovered era for its history of costumes in Korea. Fortunately, these days, there are various kinds of buddhist statues discovered with its burial accessories such as costumes and dyed fabrics of the *Goryeo* era. Through these, we can glimpse through the *Goryeo* cloths and develop our researches on this field. In addition, a man called *Seo Geung*(徐兢, the Chinese scholar *Xu Jing*) wrote a book in the 12th century about peoples lives in *Goryeo* and in this book, there are few documents about the people's costumes which help us to understand the period's traditional dresses. In this paper, we will look for the traditional costumes which were formed and developed through people's lives in *Goryeo*, using remains from various burial accessories in buddhist statues as well as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costumes written in 《*Goryeosa* 高麗史》. Moreover, costumes of a period usually developed and influenced by the atmosphere of people's lives both economically and mentally,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especially focus on the dresses of the bureaucratic officials and their wives, who led comfortable lives and latitude of mind. Through the records, like *Silla*, *Goryeo* exported *Sehjeo*(細苧) and *Sehjoongmapo*(細中麻布) to China. And we found out that *Silla*'s skillful weaving techniques of hemp and ramie cloths were succeeded to *Goryeo*. According to above facts, *Goryeo* people made clothes with various kinds of fabrics such as, different sorts of silks, ramie, hemp cloths and cottons. They also have very skillful manufacturing techniques for certain textiles. Their official robes were generally influenced by Tang and Song Dynasty, but, like ordinary people, we found out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also wore *baji*(pants) and a *jeogori*(jacket), which were traditional costumes since the *Unified Silla* Kingdom with various coats. Especially, women's costumes such as *jeoksam*(unlined summer jacket) and *hansam*(閑衫), which are sort of *jeogori*(jacket), *baji*(pants) and *chima*(skirts) were made of various kinds of silks and ramie cloths, that were generated from the *Goguryeo* Kingdom, with *jikryeongpo*(a long jacket and striped skirt).

Key words: *baji*(바지), *costumes*(복식), *sehjeo*(細苧), *sehPoh*(細布), *Xu Jing*(徐兢).

[†] 교신저자 E-mail : kschoi@smu.ac.kr

통의상의 실상이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떤 옷감을 만들어 이용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I. 序 論

전통의상은 한 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전통의상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자리한 독특한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기후조건 하에서 어떠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갖고,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였느냐에 따라서 고려시대 전통 의상의 형태와 특징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사회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갔느냐에 따라 고려인들만의 고유한 사상과 가치관을 형성시켜 나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고려의 의상문화도 독특한 개성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傳統衣裳史 연구에서 가장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부분이 고려시대 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려시대의 경우 관계 유물로 현존하는 것이 몇 점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록조차도 극히 제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최근 발견된 각종 불상의 복장 유물로 나온 고려시대의 의상과 염직물들은 고려시대 전통복장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高麗史를 비롯한 高麗圖經 등 각종 기록 속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전통복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 검토하는 한편, 고려시대 고분벽화 속에 등장하는 전통의상들 및 최근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된 각종 佛腹藏遺物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는 방법으로 고려인들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한 전통복식과 그것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옷감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검토순서는 먼저 고려시대 사람들의 의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거문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려인들이 창조한 전

II. 고려인의 住居文化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전통복식의 형성 발달에는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환경적 특성과 함께 주거문화 수준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려인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주거문화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12세기 고려 인종 때 송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왔던 徐兢은 12세기 고려인들이 都城인 개경은 물론 지방의 城邑들도 높다란 성곽으로 둘러싼 속에 법도 있게 배치한 도시 공간에 종묘와 사직, 관청, 학교 등 각종 건물들을 건설한 사실을 기록하여 전한 것을 보면, 이 시기 고려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주거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서경은 수도 개경의 화려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아름답게 장식한 樓觀에 관한 기록을 남기어, 12세기 仁宗代에는 開京의 왕궁과 관도 양쪽과 國相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많은 누관들이 사치할 정도로 많이 들어섰던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왕궁의 동쪽에 세워진 누각들은 ‘발과 ‘장막’까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어 당시 고려의 상류층은 宋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한 住宅을 진조하고 住居文化生活을 누리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¹⁾ 따라서 고려시대의 복장문화 역시 이러한 화려한 주택과 우수한 주거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발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민들은 대부분 흙 침상이며, 땅을 파서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²⁾고 소개한 서경의 글을 보면, 고려시대 서민들은 비록 초가집의 흙바닥 위에서 생활하였을망정, 추운 겨울은돌방에 따뜻하게 불을 때고 생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³⁾ 따라서 서민들의 의상 역시 이러한 온돌생활과 또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던 노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경은 고려의 상류사회 사람들이 입식의 주거생

1) 徐兢, 『高麗圖經』, 卷 3 城邑 樓觀條.

2) 徐兢, 위 책, 卷 3 城邑 民居條 참조.

3) 徐兢, 위 책, 卷 28 供帳 1 臥榻條 참조.

할과 관련해 “침상인 와탑(臥榻) 앞에는 평상 세들이 놓여 있고 난간이 둘러 새워졌는데, 각각 무늬미단의 보리를 깔아 놓았다. 또 큰 자리가 놓여 있는데 돛자리의 편안함은 전혀 오랑캐의 풍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 글을 남기고 있다.⁴⁾

이에 의하면, 12세기 고려 귀족들은 화려하고 규모가 큰 주택에서 살면서 청결하고 위생적인 침상인 와탑과 함께 평상을 놓고 지내는 입식형태의 주거문화는 누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궁이 소개한 바의 고려인들이 가구를 배치한 형태와 고구려 고분 벽화의 주인공을 모신 主案의 가구 배치 모습이 대단히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의 주생활은 대체로 고구려시대의 입식생활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궁은 12세기 고려인들이 세계 최고의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옛 사서에 고려를 살었는데 그 풍속이 다 깨끗하다고 하더니 지금도 그러하다. 그들은 매양 중국인들의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고 문을 나서며 여름에는 날마다 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시내 가운데서 많이 한다.」⁵⁾

위 글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옛날부터 고려에 대해 깨끗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반면, 고려인들은 중국인들에 비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문화를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고려 귀족들의 일상생활은 더욱더 호사스러울 정도로 정결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 같다. 서궁은 이와 관련해서 「부잣집에서는 큰 자리를 깔고 시비가 곁에 늘어서서 자기 手巾과 淨瓶을 들고 있는데 더운 날이라도 괴롭다 하지 않는다.」⁶⁾고 하여 고려의 귀족들은 여름철이면 화문석 같은 화려하고 시원한 자리를 칸 평상 위에 앉아, 노비가 곁에 서서 따라주는 정병의 물로 수건을 적서 수시로 손을 닦고 지내는 청결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많이 남아있는 청자 정병들이나 은을 비롯한 각종 금속으로 만든 정병들의 존재를 가지고

도 이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12세기 인종 대 왕실과 귀족층은 규모가 크고 화려한 가옥에서 위생적이고 청결하며 아취가 있는 화려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의 전통 복장은 이와 같이 청결한 생활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귀족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흰빛으로 대표할 수 있는 깨끗하며 우아한 색깔의 복장들이 유행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민의 의복 역시 초가집 일망정 깨끗하고 따뜻한 온돌생활을 통하여 보다 위생적인 주생활을 영위하면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 실용적인 복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고려시대 전통의상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 고려인들의 의상은 어떠한 것이 있었고, 또 그 특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전통의상의 형성 발달에는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자연환경적인 특성 못지않게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과 경제적인 특징과 함께 주거문화의 수준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는 정치 사회적으로 신라 천년의 전통을 평화롭게 이어받음으로서 고려사회 일반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의상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역사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려 건국 초기의 사상과 문화를 주도한 계층이 신라의 구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라적 전통이 고려사회에 순조롭게 계승되어 발달하는 데도 일조하여 고려인들의 의생활에 신라적 전통이 비교적 강하게 남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문화의 중심이 경주로부터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으로 북상하면서 의상문화의 성격도 점차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고려 건국 초기부터 고려 건국의 주체 세력이 關京과 瀕西地域 출신으로 고구려적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인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고려건국과 동시에 고구려적 생활 문화로 회귀하는

4) 徐兢, 위 책, 卷 28 供帳 1 臥榻條 참조.

5) 徐兢, 앞의 책, 卷 22 雜俗 澣濯條 참조.

6) 徐兢, 위 책 卷 20 婦人 貴婦條 참조.

현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사 地理志 序文에서 “우리 海東은 二面이 바다로 둘러 있고 한 면만이 육지에 연결하여 강토의 넓이가 거의 萬리나 된다. 高麗 太祖가 옛 高句麗의 땅에서 일어나 新羅를 항복받고 後百濟를 멸하여 開京에 도읍하고 三韓의 땅을 통일 하게 되었다.”⁷⁾한 것을 보면, 고려가 실제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는 고구려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인해 주거생활이나 의상 등 생활문화 전반에 복고적인 고구려 문화가 다시 유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더욱이 고려가 태조가 건국초기부터 고구려의 부흥을 꿈꾸고 복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구려적 정신과 문화가 부흥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상에 따라 고려의 왕실과 상류 사회에서는 高句麗式의 생활양식으로 복귀하는 복고주의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구려적 전통의 주거생활과 의상문화가 다시 유행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高麗史』 「輿服志 序文」에는 고려시대 衣裝의 始原과 그 변천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가) 東國은 三韓으로부터 儀章 服飾의 國風을 따르다가 신라 태종(부열왕 : 김춘추)에 이르러 당의를 청하여 들여다가 襲用하니, 이 후에 관복의 제도가 중국에 어느 정도 比擬하게 되었다.

나) 고려 태조는 개국 초 일이 많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라의 구제를 그대로 따라 사용하였다. 광종에 이르러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정하니, 이에 尊卑·上下의 等位가 밝혀졌다. 顯宗이 남쪽에 蒙塵하게 되매, 文籍이 散逸되어 제도를 시행함이 어찌하였는지 지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

다) 毅宗朝에 平章事 崔允儀가 祖宗의 憲章을 모으고 唐制를 가려 섞어서 고금의 예를 상정하였는바, 위로는 儀衛鹵簿에 마치고 아래로는 百官의 官服이 실리지 않음이 없이 一代의 制度가 갖추어졌다.⁸⁾

위 사료 가)에 의하면, 太宗 武烈王에 이르러 唐衣를 청하여 들여다가 습용 하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이 조화나 관청에서 근무할 때는 중국식의 관복을 입게 함으로서 관복 제도가 중국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주정산이 강했던 신라 관인들은 관복을 어디까지나 의례용으로 입는데 그치고 평상시에는 민족전통의 국풍의상을 고집함으로서 신라의 전통의상이 더욱 강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료 나)에 의하면 고려 태조 대 복식은 대체로 신라 官服制의 전통을 이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光宗代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려적인 특색을 가진 百官의 公服制를 정하여 尊卑上下의 등위를 밝히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光宗 11년에 峻豊이란 새로운 年號를 자주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거나, 송과 국교를 통하기 이전 시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자주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뒤에 사료 다)의 내용과 같이 毅宗代에 와서는 고금의 예를 상정하여 위로는 국가의 각종 의례로부터 아래로 百官의 官服에 이르기까지 일대의 제도가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드디어 高麗의 독자적인 官服制가 완성 되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종 대 완성된 관복제도는 송과 고려의 특수 관제로 인해 송의 관복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경이 “관직명이 일정하지 않고 조정에서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이 혹 우리 송과 다른 것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冠服圖를 그린다.”⁹⁾고 한 것을 보면, 12세기 고려의 관복제가 송의 제도와 대체로 일치하면서도 고려적 특색을 지닌 관복제가 마련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민왕 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君臣 冠服은 이미 土風에 맞도록 제정하여, 하여금 上下의 구분이 있도록 하였은즉 가히 바꿀 수 없는데 근래에 경솔히 便利를 좇아 고쳐서 尊卑가 混淆되었다.”고 한 기록을 보면 의종 시대에는 고려적 특색을 지닌 土風의 관복제로 정비되었던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¹⁰⁾

7) 『高麗史』 卷 56 志 10 地理 1 序文 참조.

8) 高麗史 卷 72 志 26 輿服志 序文.

9) 徐鏡, 앞의 책, 卷 7 冠服條 序文 참조.

10) 『高麗史』 卷 72 志 26 輿服志 1 恭愍王 16年 教書 참조.

이 상에서 살핀 관복제와는 달리 고려시대 사람들의 평상복에 대해서는 서민 외 경우는 물론 상류층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자세히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고려 성종 원년 崔承老가 성종에 올린 22조의 건의문에는 고려 성종 초기 상류층과 서민들이 입었던 복식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가) 신라 때는 公卿과 百僚, 庶人의 衣服과 신발 버선에는 각각의 品色이 있어 公卿과 百僚가 朝會할 적에는 公欄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笏을 갖추었으나 退朝하면 便宜대로 옷을 입었으며, 일반 백성은 文彩를 입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귀천을 분별하고 존비를 가리려한 때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公欄은 上產이 아니나 百僚가 自足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나) 我朝에 와서는 太祖以來로 귀천을 막론하고 공란을 마음대로 입어 관직이 비록 높아도 집이 가난하면 능히 公欄을 갖추지 못한 반면, 비록 官職이 없어도 집이 富하면 綾羅錦繡를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中略)

다) 벌건대 백료로 하여금 朝會에서는 한결같이 중국과 신라의 제도대로 公欄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홀을 갖추어 착용하도록 하고, 아뢰 때에는 버선을 신고 나서 가죽신을 신도록 할 것이며,

라) 서민은 文彩 비단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올이 굵은 紬絹만 쓰도록 허소서¹¹⁾

위 사료 가)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관료들이 조회 때에만 公欄을 입고, 退朝 후에는 편의대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신라의 전통복장인 국봉의 복장이 이어져 올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료 나)의 내용을 보면, 고려 건국 이래 성종 원년까지는 신라시대 이래의 준비귀천의 差等복제가 무너져 官職의 有無에 관계없이 재력이 있는 경우 綾羅錦繡를 임의대로 입을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服制가 계속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로 인해 崔承老는 사료 다)의 내용과 같이 조회에서 만은 신라나 중국의 제도대로 公欄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홀을 갖추도록 할 것과 임금께 아뢰 때에는 반드시 버선을 신고 가죽신을 신어 격식을 차리도록 할 것을 권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 성종 초까지도 문무백관들의 공복과 신발이 격식을 갖추어 제대로 착용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료 라)와 같이 최승로가 일반백성들에 대해서는 문채 비단의 착용을 금지하는 대신 올이 굵은 紬絹만을 쓰도록 건의한 것을 보면, 이 때에는 일반 백성들이라도 부유하면 문채비단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서민의 생활이 향상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한편 고려의 관인들이 조정에서 귀가하면 공란 대신에 전통적인 국봉의 의상을 즐겨 입었던 사실은 “국왕도 한가로이 있을 때는 검은 두건인 冑巾과 흰 모시로 된 白紬袍를 입으며 서민의 차림과 다름이 없다.”고 소개한 기사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¹²⁾

서공은 또 “農民 商人등 백성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 백저포를 만들어 입었고, 烏巾에 네 가닥 띠를 하였는데 다만 깃의 곱고 거친 것으로 구분한다. 나라의 벼슬아치나 귀인들 역시 물러가 私家에서 생활할 때는 모두 白紬袍를 입었다. 다만 두건의 띠를 두 가닥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간혹 거리를 갈어갈 때 향리나 백성이 이 두 가닥 띠를 보고 피한다.”¹³⁾ 는 기록을 남기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국왕은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조건과 백저포를 평상복으로 입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冑巾의 끈을 가지고 존귀를 표시하였는데, 띠가 두 가닥으로 된 조건은 향리나 서민들이 피할 정도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착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왕으로부터 민서에 이르기까지 고려인들이 입었다고 하는 백저포의 형태는 어떠한가. “寬袖일 때는 袍가 되고 窄袖일 때는 衣가 된다.”는 견해를 따른다면 소매가 넓고 전체 기장이 긴 도포와 같은 형태의 겹옷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그러나 고려시대 동경에 남아있는 그림을 보면 袍의 모양이 조선시대 두루마기와 유사하여, 고려 후기에는 착수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1) 『高麗史節要』 卷 2 成宗文懿大王 壬午 元年 6月條 崔承老 陳文 제9條 참조.

12) 徐兢, 앞의 책 卷 19 冠服 土服條.

13) 徐兢, 위의 책 卷 19 民庶 農商條 참조.

14)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대학출판소, 1989), p. 172.

다만 백저포 위에 넓은 띠를 두르고 있었던 점이 조선시대 두루마기의 형태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물로써는 1973년 충남 서산의 문수사의 금동여래좌사의 복장유물로 나온 백저포가 있는데, 충목왕 2년(1346)의 발원문이 있어 그것이 제작된 시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백저포는 옷깃의 형태는 선을 짚 잘라 붙인 듯한 기코와 깃 궁둥이가 보가진 곧은 것이며, 부가 달려 있고 양편에 트임이 있으며 트임 안쪽에 겹 맞주름이 잡혀 있는 반소매 옷이었다.¹⁵⁾

그렇다면 고려인들이 유독 백색 저포와 같은 흰색 옷을 선호하였던 이유는 우리 민족이 天帝子 桓雄의 아들인 國祖 檀君을 하늘님(天帝=태양신)의 손자로 받드는 天孫思想과 함께 選民思想을 갖게 되면서 햇빛을 흰빛으로 인식하여 신성시 하였고, 또 거기에다 순수함과 깨끗함을 즐기던 민족성으로 인해 흰색을 특별히 선호하게 되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백저포는 염색하지 않은 자연색 모시를 옷감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고려인들은 오히려 백옥 같은 순백색이 나타나도록 노력한 끝에 눈처럼 희게 표백한 세저를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더욱 애착을 갖고 자랑스럽게 입고 나섰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시대 유행한 다듬이질 역시 순백색으로 빛나는 옷감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다듬이질이 널리 보급되었던 사실은 동분선에 전하는 “님은 멀리 行役에 떠나가고, 나 혼자 빈방을 지키니 빈방도 한스러워 한밤의 추위에 떠다. 하늘에는 달이 밝아 한 밤에 휘장을 비취 주니, 흰 이슬은 다듬이 돌을 적시고, 다듬이 소리는 슬픔으로 변진다.” 고 읊은 俊邈의 “擬成婦掉衣詞”라는 詩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유난히도 북방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고려시기 대부분의 고려여인들은 이 시의 내용과 같이 홀로 남아 다듬이질로 한밤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다듬이질은 널리 퍼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서궁은 “가을과 겨울의 치마는 간혹 황색 비

단 쓰는데 어떤 것은 진하고 어떤 것은 옅다. 궁경대부의 처와 사민의 처와 유녀의 복색이 구별이 없다.”고 하여 귀족과 士民의 처는 물론 거리의 遊女들까지 구별 없이 모든 고려 여인들이 가을과 겨울에는 짙고 옅은 빛깔의 黃色 비단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던 사실을 소개한바 있다.¹⁶⁾

이밖에도 “왕실의 여자들은 더욱 사치스러워 다홍색 치마나 그림과 수를 더한 호사한 치마를 입기도 하였다.”고 소개한 서궁의 기록을 보면 왕실과 귀족의 여인들은 노랑색이나 다홍색 치마뿐만 아니라 그림과 수를 더한 치마 등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¹⁷⁾

그리고 동분선에 전하는 宏演님이 지은 ‘春米行’이란 시에서 “푸른 치마 머느리 기운 센 다리로 방아를 밟는다.”라고 하여 고려 여인들이 방아 짚는 작업 중에 푸른 치마를 입기도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서궁은 또 貴婦(貴婦)조에서 고려 여인들이 비단 바지를 착용하고 다양한 치장을 하였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흰모시로 포袍를 만들어 입는데 거의 남자의 포와 같으며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넓은 바지를 만들어 입었는데 안을 생명주로 받치니 이는 넉넉하게 하여 옷이 몸에 붙지 않게 함이다. 甘藍빛 넓은 허리띠를 띠고 체색 끈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으로 만든 향량을 차는데 이것이 많은 것으로 귀하게 여긴다.」¹⁸⁾

위 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고려의 貴婦인들은 무늬비단으로 만든 바지를 입은 위에 흰 모시로 만든 袍를 입고 감람 빛 넓은 허리띠를 사용해 앞을 여미게 하고 그 위에 금방울과 향량을 차는 의상연출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바지는 치마와 함께 통일신라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민족이 즐기차게 즐겨 입었던 대표적인 下衣이다. 고려 여인들이 입었던 생명주로 안을 받친 무늬비단으로 만든 폭 넓은 바지의 형태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평평집한 바지형태와

15) 김비자, 「우리나라의 포의 종류와 변천」 『한국복식 이천년』 (서울: 도서출판 신유, 1996), p. 251 참조.

16) 徐兢, 앞의 책, 卷 20 貴婦條.

17) 徐兢, 위 책, 卷 20 貴婦條.

18) 徐兢, 위 책, 卷 20 貴婦條.

아주 유사한 점을 살필 수가 있어 이시기 고구려풍의 바지가 유행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고려시대 말기로 오면서 고려의 여인들이 바지보다는 치마를 많이 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실은 거창 둔마리 고분벽화의 공양인물상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그림은 선화로 되어 있는데 동실 서벽의 여인상을 보면, 긴치마를 저고리 위로 받쳐 입고 있어 이 시기에는 여인들이 치마와 저고리를 일반적으로 입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체적인 치마의 모양은 풍신하고 주름은 윗부분에만 잡혀 있을 뿐 아랫단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며 치마허리는 치마단과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⁹⁾

서경은 또 “紵衣는 곧 속에 입는 옷이다. 夷俗은 純(가장자기에 두른 선)과 領(옷깃)을 쓰지 않고 양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저의를 입었다”고 하여 고려인들 모두가 속옷인 紵衣를 만들어 겉옷 속에다 맞춰 입었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²⁰⁾ 서경은 또 고려인들이 복욕을 하는데 紵裳과 함께 紵衣를 입었던 사실을 전하는 글을 남기어 고려시대에는 복욕용 전문 의상이 따로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²¹⁾

이밖에도 최근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고려시대의 佛腹藏 遺物들 속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의상과 옷감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을 통해 고려의 전통복장의 실체와 그 변천 과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해인사 복장유물로 나온 백저포와 15세의 여성 송부개가 입었던 요선철릭, 문수사에서 나온 백저포, 은양박불관이 인수보관중인 “宰臣庾弘愼 妻李氏” 銘이 적혀있는 春衫과 백초의, 紫色上衣 등은 고려 말 전통복장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되어주고 있다. 이중에서도 철릭은 원에서 유행하던 것이 고려 후기에 고려에 전래된 袍의 일종인데 袍나 관복의 밑받침 옷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요선철릭은 철릭의 허리에 線장식이 있는 상의로 해인사 복장 유물중 함께 나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²²⁾ 이것들을 보면 고려시대 후기에는 백저포나 적삼 이외에도 直領袍와 철릭 같은 상의를 다양하게 입고 생활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IV. 고려시대의 옷감에 대한 이해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는 고려인들이 만들어 입었던 옷감에 대해 그다지 많은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양잠을 하여 견직물을 생산하였고, 이와 함께 마포 저포 및 모직물이 생산되었던 사실은 중국의 삼국지를 비롯한 여러 史書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²³⁾ 특히 三國史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신라시대부터 綾, 羅, 縑, 紬 등의 絹織物과 함께 麻布, 紵布 및 모직물인 麤와 氈 등 다양한 직물을 생산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²⁴⁾ 그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 이미 무늬를 넣어 짠 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하기도 하였고, 통일신라시대 어아금과 조하금이란 명성을 얻은 비단을 생산하여 당에 수출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통일 신라 시대에는 비단을 짜는 직조기술이 대단히 발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統一新羅 時代의 비단 직조 기술과 봉제기술이 전승되어 발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宋史 高麗傳을 보면, 天禧 3년 11월에 고려에서 元信 등으로 하여금 공물로 바친 物目 속에 麤錦衣褲 즉 모직물인 계와 견직물인 錦으로 만든 옷과 이불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려가 비단의 대국인 송에 비단과 모직으로 된 옷감과 이불감을 수출하였던 것을 보면 고려의 견직물과 모직물의 직조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봉제기술도 높았던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이 기록 이외에도 고려시대 사서들을 자세히 보면 고려에서 생산한 비단의 질이나 생산량도 많았던

19) 『거창 둔마리 고분벽화』 이화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도록 (1973) pp. 39-53.

20) 徐鏡 앞의 책, 卷 29 供帳 2 紵衣條.

21) 徐鏡, 위 책, 卷 29 供帳 2 紵裳條.

22) 『三才圖會』 衣服 二卷 39 而 腰線襖子 條 참조.

23) 『三國志』 魏書 東夷傳 참조.

24) 『三國史記』 卷 33 雜志 2 色服 條 참조.

25) 『宋史』 卷 487 列傳 제246 外國 3 「高麗」 天禧 3年 11月條 참조.

것을 알 수가 있기 확인할 수가 있다.²⁶⁾ 그리고 고려시대 왕들이 중국에 보낸 물품들 속에는 각종의 고급 비단들이 반드시 들어 있었던 사실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최승로의 건의문을 통해 고려 초기에는 서민층까지 비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비단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비단직조 기술이 한층 발달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⁷⁾

고려시대에는 織染局이나 都染院과 같은 어용 염료의 제조 및 염색을 맡은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朱黃 淡黃 紫丹 碧靑 烏靑 등의 다양한 채색을 개발 이용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색채와 염색 기술이 개발되어 발전해 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⁸⁾ 孫穆은 鷄林志에서 “고려에서는 염색을 잘하는데 홍색과 자색이 더욱 묘하다” “고하여 고려가 염색술이 뛰어났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서경은 또 「고려는 공장(工匠)의 기술이 지극히 정교하여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는 다 관아에 귀속되는데 이를테면 僕頭所나 將作監 같은 곳이 그곳이다.²⁹⁾” 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옷감 뿐 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장인들의 솜씨가 뛰어났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염색을 전담한 도염서와 金箔匠들이 소속된 장치서(掌治署)까지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직조기술과 봉제기술이 통일신라시대보다도 한층 발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1990년 온양 박물관이 입수한 아미타불의 복장유물 267점 가운데는 염색품 228점이 포함되어 있어 고려시대 각종 옷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옷감들은 함께 나온 墨書銘을 통해 대체로 1302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직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분석한 연구서에는 綾, 羅, 綃, 縑, 紬 등의 5종의 비단과 모시와 삼베 등 크게 7종의 직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고려시대 직조된 羅 가운데는 金, 銀絲를 넣어 짜거나 金箔을 하얗

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복장유물 속에서 금박으로 亞字文과 花文을 박아 놓은 붉은색의 金箔羅를 발견함으로써 각종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고려 金箔羅의 실체와 함께 고려인들의 금박기술이 뛰어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納는 누에에서 추출한 명주실 가운데서 가장 가는 실로 짠 천이다. 그 중에서도 輕縑는 지극히 얇은 비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복장유물로 발견된 納역시 지극히 얇은 우수한 직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통일신라시대 당에 수출하던 조하주계통의 직물인 초 직조 기술이 고려시대에 그대로 전승되어 생산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縑은 두껍고 뭉이 새지 않을 정도로 조직이 치밀한 염직물인데, 通典의 기록 등에는 이미 삼한시대부터 동절기 방한용으로 직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복장유물에서 발견된 紫色의 縑역시 두껍고 촘촘하게 짠 우수한 직물인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도 검을 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검은 통일신라시대 중국에까지 이음이 있었던 어아주 계통을 계승한 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복장유물에는 삼베와 모시조각도 함께 들어 있어 고려시대 삼베와 모시 織造術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興德王이 내린 禁制敎書에서 眞骨의 大等 남자는 26升 布 이하, 진골 여인은 28升 布 이하를 쓰도록 禁制한 것을 보면, 왕실의 경우 아주 고운 베를 짜서 옷감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신라시대의 삼베 짜는 기술이 고려에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고려의 삼베 짜는 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³⁰⁾

우리민족은 또 삼국시대부터 세모시를 잘 짰던 것은 널리 알려졌는데, 신라 景文王이 唐에 보낸 물품 속에 30새 모시가 들어 있었던 것을 보면 통일신라시대 세모시 직조기술이 어느 정도 뛰어났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³¹⁾

26) 『高麗史』 卷 2 世家 2 定宗 3年 秋 9月條.

27) 『高麗史節要』 卷 2 成宗文懿大王 元年 崔承老 建議 時務28條 참조.

28)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志 2 참조.

29) 徐兢, 宣의 錄, 卷 19 民庶 丁枝條 참조, 高麗史 白官志에는 幪頭店은 文宗 代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30) 『三國史記』 卷 33 雜志 2 色服 興德王 9年 禁制敎書 내용 참조.

31) 위 錄, 卷 10 新羅本紀 10 景文王 9年 7月條 참조.

이러한 통일신라시대의 세모시 직조술이 그대로 고려에 전해졌기 때문에 서금이 고려의 세모시를 보고 “세일 좋은 것을 細紗 하는데 깨끗하고 회기가 옥과 같고 폭이 좁다. 그것은 왕과 귀인들이 다 입는다.”라고 하며 고려인들의 뛰어난 직조술에 대해 감탄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²⁾

한편 統一新羅時代에는 白氈布란 특이한 직물이 생산되어 중국에 수출된 사실을 삼국사기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三國史記 景文王 8년 唐에 보낸 불복에는 大花 魚牙錦, 小花 魚牙錦, 朝霞錦과 함께 四十升 白氈布 四十匹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白氈布 역시 신라 이래로 우리민족이 직조한 특산의 명품이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직물로 인식함으로써 그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직물이다. 그런데 白氈을 한국과 중국의 신강 등 북위 35~45에 걸친 한랭한 대륙성 기후대에서 자라는 자연산 면화로 꽃이 작아 생산량은 매우 적지만 회고 부드러우면서도 빛이 나는 데, 이것을 가지고 짠 면포가 白氈布라고 고증한 바 있다.³³⁾ 따라서 백침포를 자연산 면으로 짠 綿布로 보는 경우 경문양대에는 이미 면포가 직조되고 있었음은 물론 그 직조기술도 40승이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白氈布 生産이 신라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가 건국한 후 24년이 지난 해종 2년(942)까지도 백침포 생산은 계속되어 후진에 보내졌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대가 보내온 금월과 함께 다음의 물건을 받았다.

가)붉은 바탕(紅地)에 금은 5색실로 H·月·龍·鳳을 수놓은 도포감 두벌. 붉은 바탕에 금은 오색실로 용을 수놓은 침대요감 2벌. (中略)

나) 細紗 一百匹, 白氈布 二百匹, 細中麻布 三百匹.³⁴⁾

위 사료 가)에 의하면 고려 해종 내에는 금은실로 日·月·龍·鳳등을 수놓은 뛰어난 명품 비단이 생산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료 나)에 의하면 細紗 100필과 함께 細紗의 두 배나 되는 양인 백침포 200필을 송으로 보낸 것을 보면, 고려시대 들어와 자연면포인 백침포의 생산량이 증가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고려가 높은 수준의 세저와 세중마포(細中麻布)를 짜서 중국에 보냈던 것을 보면, 三十升 紵衫段을 짜서 당에 수출했을 정도로 뛰어났던 신라의 삼베와 모시 직조기술이 그대로 고려에 전승되어 생산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³⁵⁾

V. 결 론

고려시대는 거란을 비롯한 여진, 몽고 등 강력한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면서도 끝내는 국난을 극복하고 자주성을 지켜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를 이룩해낸 시기였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위생적이고 수준 높은 생활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가면서 독특한 사상, 종교, 예술 및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속에서 고려인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고유한 의상세계를 열어나갔다.

특히 12세기 인종 때에는 왕실과 귀족층은 규모가 크고 화려한 가옥에서 정결하고 수준 높은 생활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귀족적이고 흰빛으로 대표할 수 있는 깨끗하며 우아한 색깔의 전통의상들이 유행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서민의 의복 역시 초가집일망정 깨끗하고 따뜻한 온돌생활을 통하여 보다 위생적인 주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용적인 복장으로 발전해 나갔다.

고려의 관복은 건국이후 통일신라시대의 唐풍의 복제가 습용되었지만 라말 여초의 혼란기라는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제력이 있는 경우 綾羅錦縐를 임의대로 입을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服制가 성종 원년까지 계속되었다.

고려적 특색을 가진 관복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광종대로 이때 紫,丹,緋,綠의 4단계 公服制가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성종이후 고려와 송의 빈번한

32) 徐兢, 앞의 책, 卷 23 雜俗 2 土產條.

33) 박선희, 『한국의 고대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2002) pp. 176-203 참조.

34) 『高麗史』 卷 2 世家 忠宗 2年條 참조.

35) 『三國史記』 卷 11 新羅本紀 景文王 9年 七月條 참조.

문화교류로 인해 宋風의 복식이 도입되어 고려 관복 제에 가미됨으로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의종대에 이르러서는 각종의례가 정미됨에 따라 마침내 고려적인 특색을 지닌 土風의 관복으로 발전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고려인들이 입었던 평상복은 관인들은 물론 국왕까지도 일반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동일신라시대 이래로 이어져 온 민족 전통의 백색의 저포와 부巾을 착용함으로써 國風衣裳의 전통이 지켜져 내려올 수가 있었다.

고려인들은 남녀 모두가 덧옷인 각종 袍類와 함께 바지와 저고리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고려여인의 의상은 비단과 모시, 삼베 등 각종 직물을 이용한 直領의 포와 함께 저고리 류의 적삼, 한삼 등을 즐겨 입었으며 하의로는 바지와 치마를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 입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특히 흰색을 선호하여 중요한 의식은 물론 외출시에도 흰색 옷을 즐겨 입었다. 눈빛 같은 희고 반짝이는 색깔의 옷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옷감 표백법과 다듬이질이 발달하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다양한 색채를 개발하여 물감을 들인 우수한 직물을 만들어 옷감으로 이용하였고, 금, 은사로 각종의 무늬를 넣어 짜거나 화려한 수를 놓고 금박을 한 명품비단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비단 직조술 뿐만 아니라 고운 베와 새모시를 만들던 생산기술도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한층 발전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또 細紵와 細中麻布, 백첩포등의 생산량이 늘어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거창 둔마리 고분벽화』, 이화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도록 (1973년).
- 유희경 (1989).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대학출판소. p. 172.
- 『한국복식 이천년』 (1996). 서울: 도서출판 신유.
- 박선희 (2002). 『한국의 고대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 『鷄林志』, 孫穆.
- 『高麗圖經』, 徐兢.
- 『高麗史』, 鄭麟趾.
- 『高麗史節要』, 鄭麟趾.
- 『二國史記』, 金富軾.
- 『三國志』, 陳壽.
- 『宋史』, 脫脫.